

#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2015. 10.

뉴욕사무소

# 차 례

<b>I. 최근의 미국경제 동향</b> .....	<b>1</b>
1. 실물경제 .....	1
2. 금융시장 .....	6
<b>II. 연준 통화정책</b> .....	<b>8</b>

<참고 1> 9월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평가

<참고 2> 9월 FOMC 회의 결정내용의 주요 배경

## < 요약 >

- 최근 미국 **실물경제**는 제조업 경기가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
  - **고용사정**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 우려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견조한 소비지출 증가세에 비추어 대체로 양호한 고용 증가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
  - **주택시장**은 낮은 수준의 주택재고가 주택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면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물가**는 저유가, 달러화 강세 등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대외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당분간 물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 하반기중에도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주가 하락, 저유가 지속 등이 소비활력과 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하방요인으로 잠재
-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동결 결정 이후 글로벌 성장세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 등으로 **금리와 주가**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 엔화 대비로는 약세**를 보임
  - 주가 변동성지수(VIX)는 8월말 28.4에서 9월말 24.5(10.7일 현재 18.4)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금년 1~7월중 평균(15.0)보다는 높은 수준 지속
- 9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가 동결되면서 **최초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논란이 가열**
  - 시장에서는 미국내 경기상황 판단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중국 및 여타 신흥국 경제·금융상황**이 미국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점, 금리경로 전망(dot plot)의 하향 조정 등 금리동결 조치 외에도 전체적인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상당히 dovish**하였다고 평가
    - 자체 서베이 결과 여전히 금년 12월 금리인상을 전망하는 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상보다 부진한 9월 고용지표 발표(10.2일) 이후 시장에서는 최초 금리인상 기대 시점을 2016년 이후로 급격히 옮겨 가는 모습도 관측
- ⇒ 12월 FOMC 회의 이전까지 **대내외 경제 상황 및 금융여건의 전개** 등이 연내 금리인상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 I. 최근의 미국경제 동향

1

## 실물경제

### ① 경기 : 성장세 지속

□ 최근 미국 경제는 제조업 경기가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

○ 9월중 Conference Board 소비자신뢰지수(103.0)가 시장 예상치(96.8)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

\* 시장에서는 소비재 수입, 자동차 판매 호조 등에 비추어 달러화 강세, 저유가 등 대외 여건의 변화가 가계의 체감경기에는 긍정적이라 평가하고 소비지출의 견조한 개선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다만 ISM 제조업지수가 7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등 최근 대외여건의 부정적 영향(저유가, 달러화 강세,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 등)이 제조업 경기 둔화로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

\* 시카고 PMI지수도 9월중 48.7(market concensus 53)를 기록하여 경기수축 국면으로 까지 하락

	1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제조업 수주(전월대비, %)	-0.4	-1.0	2.2	-0.7	-1.1	2.2	0.2	-1.7
▶ 경기선행지수(전월대비, p)	0.2	-0.2	0.5	0.6	0.6	0.6	0.0	0.1

### 주요 실물경제 지표<sup>1)</sup>

(전기대비, %)

	2013	2014		2015					
	연간	연간	3/4	4/4	1/4	2/4	7월	8월	9월
실질 GDP 성장률	1.5	2.4	4.3	2.1	0.6	3.9	-	-	-
■ 소비(실질) 증감률	1.7	2.7	3.5	4.3	1.8	3.6	0.3	0.4	..
- 소비자신뢰지수 <sup>2)</sup>	79.2	84.1	83.0	89.8	95.5	94.2	93.1	91.9	87.2
- 소비자신뢰지수 <sup>3)</sup>	73.2	86.9	90.9	92.7	101.4	96.2	91.0	101.3	103.0
■ 산업생산 증감률	1.9	3.7	3.9	4.7	-0.3	-2.6	0.9	-0.4	..
- ISM제조업지수	53.8	55.7	56.9	56.9	52.6	52.6	52.7	51.1	50.2

주: 1) 분기는 전기비 연율 또는 월평균(지수) 2) 미시전대 기준 3) Conference Board 기준

⇒ 하반기중에도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주가 하락, 저유가 지속 등이 소비활력과 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하방요인으로 잠재

## ② 고용사정 : 다소 주춤

□ 9월중 비농가취업자수는 14.2만명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20만명)를 하회\*

\* <참고 2> '9월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평가' 참조

- 경제활동참가율(62.4%)은 전월대비 0.2%p 하락하였으며 실업률(5.1%)은 지난달과 같은 수준 유지
- 시간당 평균임금은 정체(전월대비 0%)되었으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전월보다 감소(34.6시간 → 34.5시간)

	1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농가취업자수 증가(만명)	20.1	26.6	11.9	18.7	26.0	24.5	22.3	13.6	14.2
▶실업률(%)	5.7	5.5	5.5	5.4	5.5	5.3	5.3	5.1	5.1
▶경제활동참가율(%)	62.9	62.8	62.7	62.8	62.9	62.6	62.6	62.6	62.4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m/m)	0.6	0.1	0.3	0.2	0.2	0.0	0.2	0.4	0.0
▶주당 평균 노동시간(시간)	34.6	34.6	34.5	34.5	34.5	34.5	34.6	34.6	34.5

□ 9월중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자수(4주 평균)는 27.1만명으로 8월(27.5만명)에 비해 소폭 감소

	8월1주	2주	3주	4주	9월1주	2주	3주	4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자수(만명)	27.3	27.7	27.0	28.1	27.5	26.4	26.7	27.6



⇒ 글로벌 성장세 둔화 우려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견조한 소비지출 증가세에 비추어 대체로 양호한 고용 증가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

<참고 1>

## 9월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평가

□ 헤드라인 취업자수 부진과 직전 2개월 취업자수의 예상밖 하향조정, 임금상승률 예상치 하회 및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 긍정적인 요소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가 중론을 이루면서 대체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특히 일부기관\*이 지표 발표 직후 연준 금리인상 시점 전망을 수정하는 움직임

\* BNP Paribas 2015.12월 → 2016.3월

○ 다수의 시장참가자들이 **글로벌 경제활동 부진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거론하였고 일부에서는 2개월 연속 지표 부진에 따른 고용지표의 추세적 약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

(Goldman Sachs) 취업자수, 임금상승률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였음. FOMC의 금리인상은 견조한 미국내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및 금융여건 개선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narrow path)할 것으로 보아왔으나 최근의 금융경제상황이 이러한 조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off that path)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2월 금리인상도 close call이 될 것임(12월 금리인상 전망은 유지)

(JP Morgan) 7월 이전까지의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례적으로 가팔랐던 데다 경제성장률과 기업실적 등도 지지부진하였던 점에 비추어 일정 시점에서 고용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은 하였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둔화폭이 너무 컸고 이에 따라 향후 성장률 전망에 있어서도 하방위험이 확대. FOMC 내부 견해가 연내 금리인상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12월 금리인상 전망은 유지**하지만 이번 고용지표로 인해 동 전망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낮아졌음

(Morgan Stanley) 대부분의 지표가 매우 부진한 가운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향조정이 예상되었던 지난달 취업자수가 하향조정된 점이 무엇보다도 놀라웠음.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및 금융여건 악화(tightening) 등을 배경으로 고용활동이 현저히 둔화된 것으로 판단. 12월까지 두 번의 고용지표 발표가 남아있지만 노동시장의 개선세(some further improvement)가 흔들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합리적 확신도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금리가 조만간 인상되기는 어려울 전망(12월 금리인상 전망은 유지)**

(Barclays) 이번달 고용지표의 광범위한 부진과 전월치 하향조정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의 추세가 크게 둔화되었음. 이러한 고용 부진은 해외 경제활동 부진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요인들이 해소되는 데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 이로써 FOMC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내년 3월 인상전망 유지)

(BNP Paribas) 취업자수가 연내 금리인상에 필요한 최저 기준치로 생각하였던 15만명을 하회함에 따라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50%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판단. 가계실질 소득 개선 등으로 보아 현재의 부진이 일시적(soft patch)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고용 부진의 원인이 불분명한 데다 동절기 기후 불순에 따른 지표 왜곡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리인상 시점 전망을 내년 3월로 변경(중전 금년 12월)**

(BoA Merrill Lynch) 헤드라인 취업자수 및 임금상승률 등이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의 전월 수준 유지 또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취업자수 부진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부정적임. 특히 취업자수는 2개월 연속 부진으로 추세 자체가 하향 이동하였음. 다만 소비지출이나 GDP 등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혼조세 정도로 평가되므로 **12월 금리인상 전망은 유지**하지만 이는 추후 지표가 개선세를 보인다는 전제하의 전망임

### ③ 주택시장 : 회복세 지속

□ 7월중 20대 도시 평균 주택가격(S&P Case-Shiller지수)은 전년동월대비 5.0% 상승(전월대비 -0.2%)

○ 8월 들어서도 기존 및 신규 주택가격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4.7%, 0.3% 상승

**S&P 20대 도시 평균 주택가격**



자료 : S&P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sup>1)</sup>**



주: 1) 중위수 기준 자료: 상무부, NAR

□ 8월중 기존주택판매는 전월대비 4.8% 감소, 신규주택판매\*는 5.7% 증가

\* 8월중 신규주택판매(55.2만호)는 2008.2월(59.3만호) 이후 최고 수준

○ 주택허가건수는 전월대비 3.5% 증가, 주택착공은 3.0% 감소

	(전월대비, %)							
	1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기존주택판매	-4.9	1.5	6.5	-2.3	4.5	3.0	1.8	-4.8
■ 신규주택판매	5.3	4.6	-11.0	4.7	1.0	-9.2	12.0	5.7
■ 잠정주택판매	1.2	3.6	1.2	2.7	0.6	-1.7	0.5	-1.4
■ 주택허가건수	-1.7	3.7	-5.5	9.8	9.6	7.0	-15.5	3.5
■ 주택착공호수	0.0	-16.7	6.0	24.7	-9.9	13.0	-4.1	-3.0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



자료 : 상무부, NAR

**잠정 주택판매, 주택 허가 및 착공**



⇒ 앞으로도 낮은 수준의 주택재고가 주택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면서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④ 물가 : 근원 PCE 물가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8월중 근원 PCE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1.3%로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수준(2%)을 상당폭 하회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							
	1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근원PCE 물가	1.3	1.3	1.3	1.3	1.3	1.3	1.2	1.3
	(0.1)	(0.1)	(0.2)	(0.2)	(0.1)	(0.2)	(0.1)	(0.1)
▶ PCE 물가	0.2	0.3	0.3	0.2	0.3	0.3	0.3	0.3
	(-0.5)	(0.2)	(0.2)	(0.1)	(0.3)	(0.2)	(0.1)	(0.0)
▶ 소비자물가	-0.1	0.0	-0.1	-0.2	0.0	0.1	0.2	0.2
	(-0.7)	(0.2)	(0.2)	(0.1)	(0.4)	(0.3)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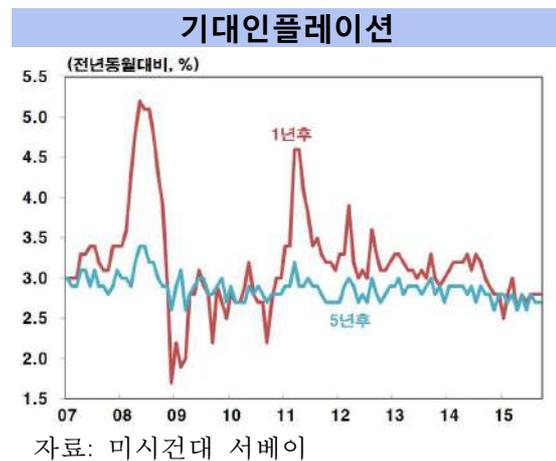
주: ( ) 내는 전월대비(%)

□ 9월중 단기 및 장기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은 각각 2.8% 및 2.7%로 전월과 같은 수준

○ BEI(Break-Even Inflation Rate, 일반 국채금리와 물가연동 국채금리간 차이)도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21bp 하락

	1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BEI <sup>1),2)</sup> (%)	1.38	1.64	1.58	1.73	1.61	1.67	1.40	1.29	1.08

주: 1) 월말 기준      2) 국채 5년물 - TIPS 5년물



⇒ 저유가, 달러화 강세 등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대외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당분간 물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2

## 금융시장

### ① 금리 : 전월 대비 하락

- 9월중 시장금리(국채 10년)는 연준의 금리동결 결정 이후 글로벌 성장세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 등으로 하락(8월말 2.22% → 9월말 2.04%)
  - 장래의 정책금리 기대를 보다 잘 반영하는 2년물 금리도 하락(8월말 0.74% → 9월말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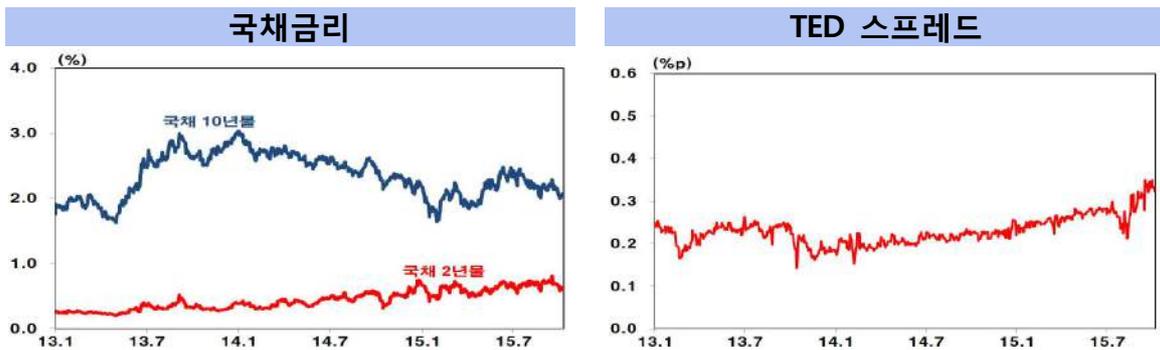
	15.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7일
▶국채 10년물(%)	1.92	2.03	2.12	2.35	2.18	2.22	2.04	2.07
▶ 2년물(%)	0.56	0.57	0.61	0.64	0.66	0.74	0.63	0.63

- 단기금융시장 유동성 지표인 TED 스프레드(3개월물 Libor - T-bill 수익률) 및 회사채 스프레드는 최근의 금융상황 악화 등을 반영하여 상승\*(각각 8월말 0.278 → 9월말 0.345, 8월말 165bp → 9월말 175bp)

\* Dudley 뉴욕연준 총재 발언(9.30일): 채권시장 유동성 위험이 증가했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으며 연준이 정책정상화를 해나가면서 상황이 확인될 것으로 보임. High frequency trading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 현상을 심화시켰을 수 있음

	15.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7일
▶회사채 스프레드 <sup>1)</sup> (bp)	121	118	124	126	138	165	175	166

주 : 1) 투자등급 회사채의 정부채 대비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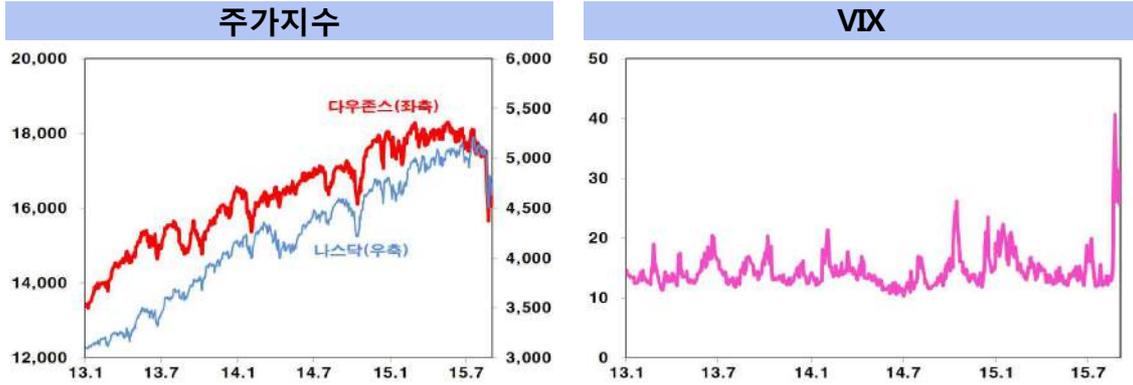
### ② 주가 : 하락

- 주가(다우존스)는 중국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국제유가 하락, 유럽 자동차 배기가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및 산업·소재 등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락 (8월말 16,528 → 9월말 16,285, -1.5%)

\* ADB(9.22일) : 7.0% → 6.8%

- 주가 변동성지수(VIX)는 8월말 28.4에서 9월말 24.5(10.7일 현재 18.4)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금년 1~7월중 평균(15.0)보다는 높은 수준 지속

	15.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7일
▶다우존스	17,776	17,841	18,011	17,620	17,690	16,528	16,285	16,912
▶나스닥	4,901	4,941	5,070	4,987	5,128	4,777	4,620	4,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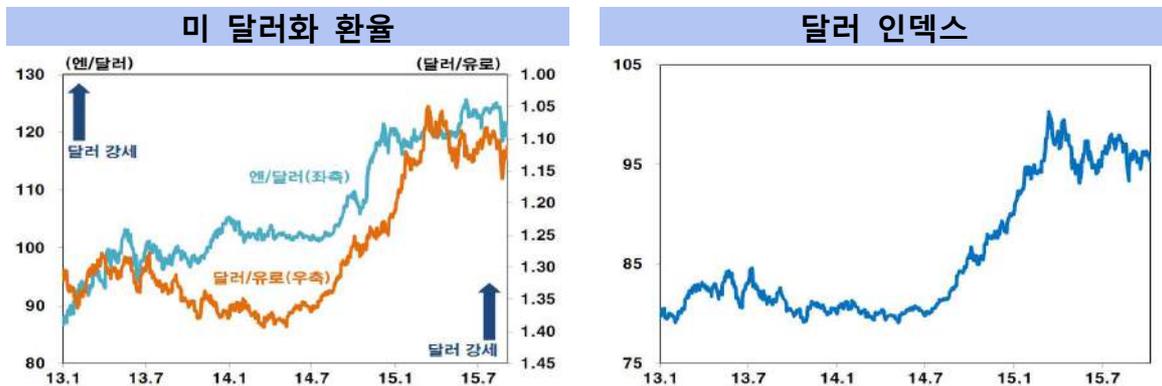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③ 美 달러화 :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 엔화 대비로는 약세

□ 미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 엔화 대비로는 약세를 보임

- 유로화에 대해서는 ECB의 추가 완화조치에 대한 기대감, 연준 주요 인사들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 및 미달러화 저가매수 흐름 등으로 강세를 시현(8월말 1.121 → 9월말 1.118, +0.3%)
-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요국 주가 하락 등으로 안전 자산으로서 엔화 수요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8월말 121.2 → 9월말 119.9, -1.1%)

	15.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7일
▶ 달러/유로	1.073	1.122	1.099	1.115	1.098	1.121	1.118	1.124
▶ 엔/달러	120.1	119.4	124.2	122.5	123.9	121.2	119.9	120.0



자료: Bloomberg

## II. 연준 통화정책

- 9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가 동결\*되면서 최초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논란이 가열

\* <참고 2> “9월 FOMC 회의 결정내용의 주요 배경” 참조

- 연준은 의결문을 통해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였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이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인플레이션 하방압력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을 새로이 지적
- 시장에서는 미국내 경기상황 판단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중국 및 여타 신흥국 경제·금융상황이 미국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점, 금리경로 전망(dot plot)의 하향 조정\* 등 금리동결 조치 외에도 전체적인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상당히 dovish하였다고 평가

\* Dot plot 전망 중심치 변화('15.6월 FOMC → '15.9월 FOMC)

'15년말: 0.625% → 0.375%, '16년말: 1.625% → 1.375%

'17년말: 2.875% → 2.625%, '18년말: 3.375%(최초), long term: 3.750% → 3.500%

-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주요 투자은행들(18개)의 공식 전망 변화를 자체 서베이한 결과 금년 12월 인상을 전망하는 기관의 비중 (55.6%, 10개/18개 기관, 10.7일 기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9월 FOMC 직후의 서베이(9.22일) 결과와 비교하면 2016년중 인상을 전망하는 기관수가 2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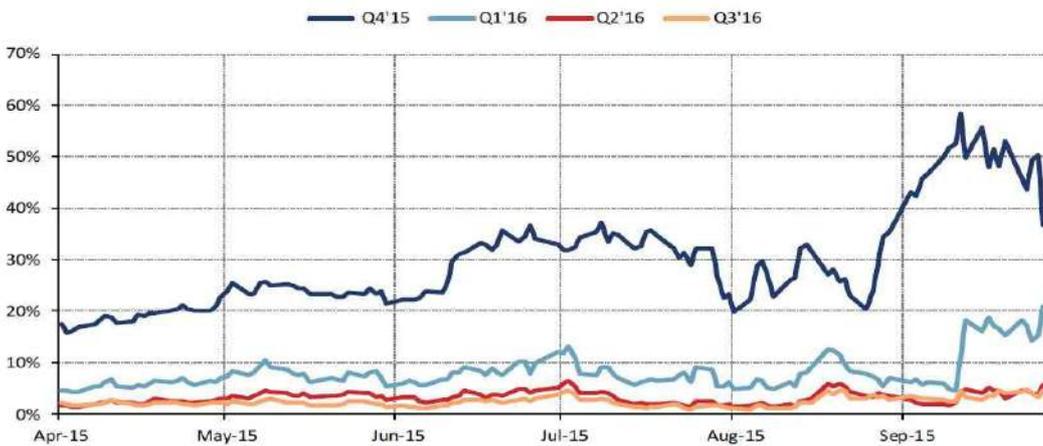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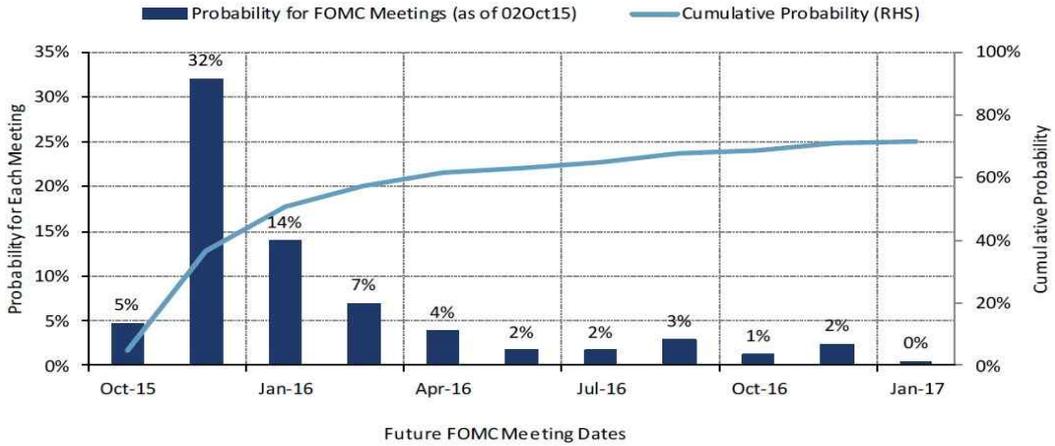
- 투자은행들은 금리인상 시점 전망을 수정하면서 ① 저유가 및 달러화 강세 지속 등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전망 약화, ②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둔화 우려 및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③ 고용 증가세 둔화 가능성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

### FOMC 회의별 금리인상 전망기관 수 변화

서베이 시점 \ FOMC회의	2015.9월	2015.10월	2015.12월	2016.1월	2016.3월
▶9월 FOMC 이전	6	2	7	-	3
▶ " 이후(9.22일)	-	2	12	-	4
▶9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10.7일)	-	-	10	-	8

- 한편 예상보다 부진한 9월 고용지표 발표(10.2일) 이후 시장에서는 금년 4/4분기중 금리인상 확률을 큰 폭으로 낮추어 평가하면서 최초 금리인상 기대 시점을 2016년 이후로 급격히 옮겨가는 모습

## 시기별 금리인상 확률



자료: 골드만삭스(10.2일)

- 다만 dot plot 상으로 17명의 위원중 13명의 위원이 여전히 연내 금리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는 상존
- Yellen 연준 의장은 9월 FOMC 회의 이후 강연(9.24일)에서 최근 해외경제 상황 변화가 경제전망 및 예상정책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은 현재 금년 내에 금리를 인상한 후 점진적인 속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

⇒ 12월 FOMC 회의 이전까지 대내외 경제 상황 및 금융여건의 전개 등이 연내 금리인상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참고 2>

### 9월 FOMC 회의 결정내용의 주요 배경

□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 미 연준은 국제유가 하락 및 달러화 강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방리스크라고 평가하고 금년도 PCE 물가 전망치를 지난 6월의 전망에 비해 큰 폭 하향 조정

○ 아울러 2016~17년중 헤드라인 및 근원 PCE 물가전망도 0.1%p씩 낮춤

	2015	2016	2017	2018	장기
▶ PCE 물가	0.4	1.7	1.9	2.0	2.0
[6월 전망]	[0.7]	[1.8]	[2.0]	-	[2.0]
▶ Core PCE 물가	1.4	1.7	1.9	2.0	-
[6월 전망]	[1.3]	[1.8]	[2.0]	-	-

자료 : 연준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현상이 심화될 경우 물가의 하방리스크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

□ (고용시장내 유휴인력(slack)의 존재) 9월 FOMC 회의를 통해 자연실업률 추정치를 기존 5.0%에서 4.9%로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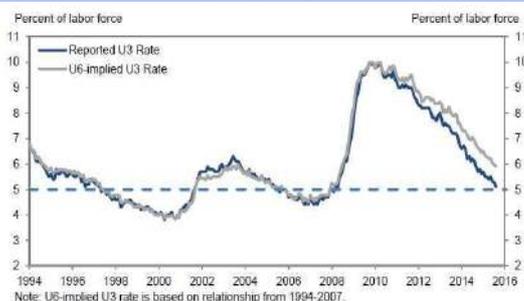
○ 취업자수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연실업률 수준이 낮아지면서 고용상황의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 여타 실업률지표(U6, 비자발적 파트타임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는 여전히 경제내 유휴인력(slack)의 잔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

□ (중국 등 대외리스크의 부각) 미 연준은 중국 경제둔화 가능성 등 대외여건 변화와 이로 인한 금융긴축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16~2017년 경제전망치를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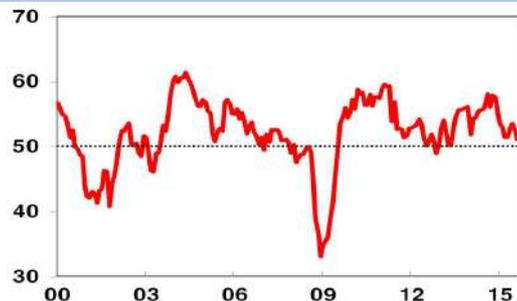
⇒ 최근 대외여건 악화로 제조업 생산 등이 둔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고용창출의 주된 동력인 내수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

실업률 지표



자료 : 미 노동부, Goldman Sachs

ISM 제조업지수



자료 :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